

오늘은 성탄주일(聖誕主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福音)입니다. 크게 외칠 복음(福音)입니다.

2000년전 베들레헴 근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외쳤던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救主)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여물통)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表迹)이니라 하더니 (누가 2:10-12)

첫번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初等學文)아래 즉, 율법(律法)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오신 날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매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4:4-5)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최종적인 복음(福音)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완결판이 마침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천하만민(天下萬民)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그 목적은 완성된 것일까요? 모든 인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음의 내력>과 연결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福音)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福音)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福音)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 순종(hupakouó) To obey, to listen attentively, to heed (유익) But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ed the good news (NIV)

이 사실은, 복음(福音)의 스토리(story)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1절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사야53장의 결론(結論)이기도 합니다. 아시는바대로 이사야 53장은 구약(舊約)의 복음장입니다. 12절로 된 이사야 53장은, 주제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이 장에는 4번에 걸쳐서,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합니다(1, 6, 10(2)) 주어이신 여호와가 ‘그’로 묘사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he)로 불리는 메시아는 2절부터 30번 가깝게 ‘그’가 나오는데, 그가 오셔서 멸시, 간고, 질고, 천대, 징벌,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그런 것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할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악(罪惡)을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가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말한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천년도 더 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빌립

에게 질문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나. 자기를 가리킵이나. 타인을 가리킵이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福音)을 전하니” (8:34-35)

바울은, 이사야 53장의 ‘그’가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자인 이사야도 물론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拒絶)할 것도 알았습니다.**

복음전파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들이 듣기는 바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17-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그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정도인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시편 19편의 인용(引用)입니다.

이 시편은 일반계시인 피조세계와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이야기한 시편입니다.

시편 19:1-4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穹蒼)**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분명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0-23절과도 통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세계를 통한 계시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인데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로마서 10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복음의 스토리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만큼 하고, 인간도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종결(終結)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의사가 없으십니다.** 오늘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음 라운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21절의 이야기입니다.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주목해볼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즉, 반전(反轉)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 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반전(反轉)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기서도, 바울사도는 두 개의 **구약 선지자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모세, 다른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하나 는 사랑의 역동적인 모습, 다른 하나는 처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역동적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19절이죠.

19. “먼저 모세가 이르되, ㄱ)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갑자기 이야기를 구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본류(本流)인,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참고 해야합니다. 이 구절은, 32:21절의 직접적 인용입니다만 전후를 살펴볼 때 더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1절에서 외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에 명(命)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證人)삼는 것입니다.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52절이나 되는 긴 장(章)인데, 그중 오늘본문과 직접연결이 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신명기 32:9-16절 말씀입니다.

9.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11. 미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굴은 반석에서 기름을 뱉게 하시며, 14.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비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15.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매 발로 찢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 그들이 다른 신(神)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擊發)하였도다.

이런 배경에서 신명기 32:21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猜忌)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民族)으로 그들의 분노(忿怒)를 일으키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심판을 말하는대신 뭔가 다르지않습니까? 그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질투(嫉妬)에 질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삼각구도(三角構圖)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보면 미적지근한 대상에 대해 다른 대상을 등장시켜 시기심이 나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神)을 사랑하는 자기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기백성에게 시기(猜忌)를 일으켜서, 사랑을 되찾는 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민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19절. “먼저 모세가 이르되, ㄱ)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2. (모세에 이어서) **이사야가 들려주는 처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20-21절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사랑스토리의 구체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고 말했다고 바울은 인용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65장의 배경(背景)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65:1-5절을 살펴봅시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들어봅시다. 여기서 주어진 ‘나’는 하나님입니다.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걷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사람에게 이끄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 3-6절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이 묘사됩니다. 배도와 반역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65:4의 “무덤 사이에 앉으며”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영들과 접촉하거나, 죽은 자와 관련된 주술·점술 행위를 위해 묘지/무덤 주변에 머무는 우상적·주술적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으로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애(求愛)가 참으로 애처롭다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부분을 NIV로 번역해 읽어보면,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나타냈다.”**”고.

(수동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걸 난망한 일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심초사한 배려(시간상, 치밀한 노력)가 필요하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自尊心)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차(苟且)한 사랑, 자기를 부정(否定)하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a disobedient)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gainsaying people, kjv)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거슬러 말하는 백성의 이야기를 종일 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gainsaying(게인세잉) people(kjv) 이라고



번역했더군요, <겐세이>라는 말을, 나이든 사람들은 일본어(日本語)로 들었었습니다. ‘판지를 건다’ ‘논쟁한다’는 말로 알았는데,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영어용어이지만 gainsaying이란 단어는, ‘부정하다, 반박하다, 꼬투리를 잡아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거부하며 반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종일도록 손을 벌리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인 1장과 65장 끝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우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찢으며, 찌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저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18-20절은 이렇게 대안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 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8-20절)

\*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9-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됩니다.

복음 스토리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문밖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묵 3:20)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애쓰시고, 우리의 모든 활동의 주변에서 나타나시려고 애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거기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귀한 성탄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사랑을 믿고 응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죄와 율법아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연모하시고, 흠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